

CAMPER TOGE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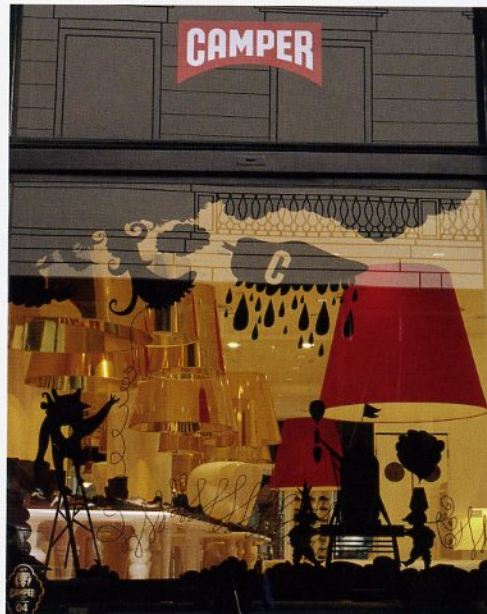
Design_Jaime Hayon **Client**_Camper Barcelona **Location**_Rambla Catalunya 112, Barcelona, Spain **Completion**_Jan. 2007 **Photos offer**_Hayon Studio **Ediotr**_Lee Hae Rin

One of Spain's most popular brands of casual shoes, favoured by its unique concepts, Camper re-clad its Barcelona store in a design by Jaime Hayon. Part of the brand's in-store project of 'Camper Together', this is the second Camper store he designed after the first one in Palma de Mallorca, home of the brand. The Barcelona store takes the form of a shop gallery, adorned by furniture and prints he designed. The intention of the Together project was to give an absolute yet subtle change to the way the Camper space is envisioned. To promote a luxury ambient inside the shop, turning it into a symbol of elegance. Very special pieces were created for this shop: handmade wood tables with different and abundant legs, very much within the Hayon style. Camper's collection of Autumn / Winter seasons is displayed on the white tables supported by the legs with intriguing neo-Baroque silhouettes, which match well with the pop illustrations on the shop's windows. A set of hand-crafted terra-cotta lamps was designed specially for the space. A new technology was developed to give these lamps an earthy yet sophisticated surface. The poufs and tables for the cash point space are all finished conspicuously in red. The red floor in resin of a silky and glossy effect playfully contrasts with the rest of the space. After the store space, Hayon went on to designing the shoes for Camper. Classically designed, they feature elements that remind of dance shoes, sporting colourfulness that is unexpected of men's shoes, which curiously harmonize with the young energy Camper celebrates. Edited by Lee Hae Rin



Display wall

독특한 콘셉트로 사랑받는 스페인 캐주얼 슈즈, 캠퍼 바르셀로나 매장이 하이메 아온의 디자인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이는 인스타그램 프로젝트 캠퍼 투게더의 일환으로 캠퍼의 고향인 팔마데마요르카에 이어 그가 꾸미는 두 번째 매장이다. 바르셀로나 스토어는 그가 디자인한 가구와 프린트 등으로 꾸며 슝 갤러리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캠퍼 투게더> 프로젝트의 의도는 캠퍼 바르셀로나 매장이 구체적 형태를 띠는 방식에 절대적이면서도 미묘한 변화를 주는 것이었다. 즉, 점포 내에 호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세련미의 상징으로 탈바꿈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점포를 위해 매우 특별한 작품이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모양의 다리를 진득 붙인 수제 나무 테이블이 그것이다. 신바록주의적인 실루엣의 다리가 눈길을 끄는 화이트 테이블 위에는 캠퍼의 가을/겨울 시즌 신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창문에 그려진 팝 일러스트와 조화를 이룬다. 또한 이 공간을 위해 특별히 테라코타 전통 한 세트를 수공으로 제작했다. 이들 전통의 표면에서 흙 느낌이 나서도 세련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다. 그리고 계산대 공간을 위해 만든 안락의자와 테이블은 온통 적색으로 마감되었으며, 이 역시 이채롭다. 화사한 광택 효과를 내는 적색 수지를 바닥 마감재로 선택했고, 공간의 나머지 부분과 재미있는 대비를 이룬다. 하이메 아온은 매장 디자인에 이어 캠퍼의 신발을 디자인했다. 아온의 클래식 슈즈 디자인은, 댄스용 신발을 연상시키는 요소들이 담겨 있으며, 남성용 신발로서는 드물게 다채로운 컬러를 자랑한다. 이는 캠퍼가 표방하는 젊음의 에너지와 묘한 조화를 이룬다. 편집 : 이해린 기자



Window painting



A set of hand crafted terra-cotta lamps



View of the ent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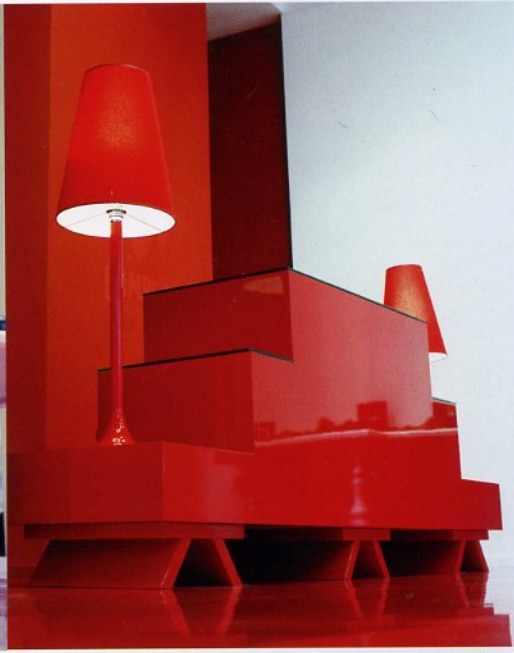
A red floor in resin of a silky and glossy



Furniture collection by Jaime Hayon



The tables with different and abundant legs



For the cash point space with all in red